

영재창의성교육과 재능계발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선영 교수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는 연구 대주제는 교육심리학 관점에서의 영재교육과 창의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영재교육과 창의성교육은 교육심리학의 세부 전공 영역으로 영재성과 창의성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이론적 모형 탐색을 바탕으로 영재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과 창의성교육이 학문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기보다 정책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영재교육과 창의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 바이며 이를 위해서 “재능계발관점”에서 영재성과 창의성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능계발(development)과 공유(dissemination)를 위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내 영재·창의성교육 세부전공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1)성공한 국내외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창의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의 본질을 밝히려는 건축창의성 연구(2차년도 과제)와 (2)개인의 창의성을 다각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는 창의성지수 개발 연구가 있다. 이외에도 영재성, 창의성, 재능 개념에 대한 비판적 해석, 논의 및 재정의, 연구자의 국제네트워킹에 기반한 영재교육과 재능계발교육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간 공동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영재성과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 2014년 “영재와 영재교육”과 “교육심리연구” 저널에 게재된 논문 두 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두 논문은 2013년 영재교육학회와 교육심리학회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론적 개념에

관한(theoretical) 연구이다.

1. 이선영(2014). 영재성과 창의성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영재성과 창의성. 영재와 영재교육, 13(1), pp.107-127

첫 번째 논문에서 저자는 영재성과 창의성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영재성과 창의성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개념인지 혹은 이질적인 개념인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논문은 영재성을 설명하는 모형에 내재된 창의성, 영재성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의 창의성, 그리고 영재들의 특성으로서의 창의성에 대한 문헌 리뷰에 기반하여 창의성이 영재성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영재성과 창의성 개념을 이들 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논의하면서 영재교육은 소수의 천재적 엘리트들만을 위한 특별한 수월성교육이고 창의성교육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재능계발교육을 지향하는 영재교육과 그 안에 이미 내재된 창의성교육은 영재성과 창의성의 개념적 관계성에서처럼 상당 부분 동질적인 속성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 이선영(2014). 창의성 계발과 교육을 위한 이론적 모형 탐색. 교육심리연구, 28(2), pp. 353~369.

두 번째 논문을 통해서 창의성 계발과 교육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탐색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능계발교육 관점에서 창의성교육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인지능력, 구성요소 모형 및 영역 특수적 접근은 오늘날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창의성 개념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론적 틀이다. 특히 창의성을 다차원적이고 영역 특수적인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창의성의 계발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논문에서 저자는 다양한 수준과 유형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잠재적 창의성을 인식, 발견, 계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개별적인

잠재성이 이후 전문적인 능력,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재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확산적 사고력을 조장하는 전통적인 창의성 증진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역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개인차에 기반한 재능개발교육에 바탕을 두고 제시하였다.